

紡績工場 原綿倉庫 大火
火因은 담배불?

1981. 7. 18

—原綿은 數日間 燻燒하다 發火하는 特性있어…
煙感知器 등 特性에 맞는 消防施設이 必要—
死亡 1名, 負傷 1名, 財産被害 約 42億원

〈西報寫眞 8番 參照〉



熱氣를 못건던 거대한 창고의 철골 「트러스」가 내려 앉았다.



화재후 밖으로 내놓은 타다남은 솜뭉치에서는 아직도 연소가 계속되고 있다.

● 一般事項

建物用途：紡績工場 原綿倉庫

所在地：忠清南道 大德郡 진잠면

火災日時：1981. 7. 18 23:50~翌日 09:00

發火位置：原綿倉庫 中央部(三個區劃中)의 自家保稅藏置場

火災原因：作業時 버려진 (담배)불씨에 長時間 燻燒後 發火推定

● 工場概要

佔地 932,243m², 建物 總延面積 306,992m²로서 大小 22個棟의 建物로 構成. 罹災 建物은 철근「콘크리트」造 철골「트러스」와 「스레트」지붕의 單層 倉庫建物 1棟 13,616 m²로서 前面에서 불때 左側으로부터 落綿倉庫(4,072m²), 自家保稅藏置場(4,610m²), 通關原綿倉庫(4,610m²) 등 3個 部分으로 되어 있었다. 同工場은 紡績設備 285,184臺, 織布設備 2,700臺, 染色設備 月 1千萬야-드의 能力을 가지고 있는 大規模 紡績工場 이었다.

● 火災狀況

火災當日 17:40시경 作業을 끝내고 倉庫를 施錠한 후 6時間여가 지난 23:50시경 自家保稅藏置場에서 불길의 솟아오르는 것을 從業員이 最初로 目擊하였다. 當時 同倉庫 建物로부터 6m 거리에 위치한 紡績工場은 稼動中이었는데 불길을 發見하고 從業員들이 현장에 달려가 보니 이미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으며 창고 全域은 연기로 가득차 接近이 어려운 상태였다. 火災發見이 늦어져 초기진화에 失敗함으로써 출동한 소방대와 종업원들의 필사적인 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잡히지 않아 창고건물 13,616m²중 낙면창고 부분 4,072m²를 제외한 自家保稅藏置場 및 通關原綿倉庫 部分 9,544m²와 내부에 收納되었던 原綿 17,685bale을 모두 태우고 翌日 09:00 時頃에야 完全 鎮火되었다. 鎮火作業中 建物이 崩壞되면서 從業員 1명이 死亡하고 1명이 重傷을 입었다.

● 被害狀況

人命被害：死亡 1名, 負傷 1名

財産被害：41억9천만원(建物：6억1천만원, 動産-原綿：35억8천만원)

● 問題點

1. 火氣禁止區域 管理 소홀 및 原綿特性에 맞는 火災早期警報體制 未治.
 - 原綿倉庫와 같은 場所는 火氣禁止區域으로 指定, 성냥, 「라이터」 등을 所持하고는 출입이 금지되어야 함(本火災는 作業時 버려진 (담배)불씨에 의하여 發生된 것으로 推定됨).
 - 原綿은 불씨가 남아있는 경우 長期間(數日동안) 燻燒를 계속하다가 發火하는 등의 特性이 있으므로 煙感知器 등 보다 早期에 火災를 警報할 수 있는 設備의 設置 및 收納後 一定期間 수시 감시하는 등의 對策이 필요함.

2. 消火施設의 未備

- 延面積 13,600m²에 이르는 大規模 原綿倉庫는 「스프링클러」設備와 같은 自動消火設備의 設置가 필요했음.

3. 防火區劃의 未備